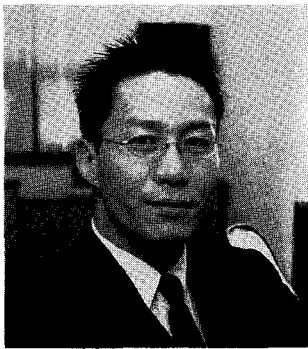


국산녹용 판로개척 위한 방안 찾아야

양륙인 「나 하나 짚이야」 아닌 「나로부터 시작」을



설 동 훈
보건신문 편집국 의료부 기자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국산녹용의 소비 확대를 도모하고 침체에 빠진 국내 양륙산업의 기반을 강화시킬 방안은 과연 무엇인가.」

국내의 양륙인과 양륙관련 단체라면 어느 누구랄 것 없이 모두에게 무시로 던져지는 화두이다.

올해도 이같은 화두는 어김없이 던져질 것이며 양륙인과 관련단체들은 이같은 화두의 풀이에 한햇동안 가슴앓이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양륙인과 양륙관련 단체들이 국산녹용의 판로개척에 부심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입산에 비해 품질과 약효, 신선도에서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국산녹용의 소비가 부진 고전하는가 하면 이로 인해 관련산업이 침체되는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산녹용은 전국 1만여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꽃사슴과 레드디어, 엘크 등 17만두의 사슴을 통해 연간 11만kg (건녹용으로는 3만6천kg 추산) 가량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전체 소비량의 21.3%에 해당되는 물량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다량으로 유통되는 러시아산과 중국산, 뉴질랜드산 등 수입녹용에 밀려 이마저도 제대로 소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우리나라가 전세계 생산 녹용의 80%를 소비하는 녹용의 최대 소비국임을 감안한다면 기막힌 현실인 셈이다.

양륙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연간 녹용 사용량 18만5천7백42kg, 녹용수입량 14만9천4백46kg, 연간 녹용수입금액 4천2백75만9백90달러라는 국내 유통 녹용의 소비실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통계 수치에 이르면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거대한 시장규모를 갖고 있는 국내 녹용시장의 대부분을 수입녹용이 차지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처럼 품질과 약효면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국산녹용의 소비가 부진한 것은 정책부재를 비롯 관련업계의 그릇된 편견, 업계의 홍보부족, 소비자들의 인식부족 등 여러 가지 제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특히 정책의 부재와 관련업계의 편견, 양륙업계의 내부적인 문제 등은 양륙산업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산녹용의 소비확대와 이를 통한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문제점들의 극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필요로 한다.

양록산업과 관련한 정책의 부재는 국내 양록산업이 수십년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아직껏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을 제공한 부분이다.

특정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 산업 활동과 경쟁력의 확보는 정책적인 지원이 있을 때 보다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산업이 국가의 1차산업의 지원 확보와 관련된 분야일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양록산업과 관련된 정책은 지금까지 전무한 실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련법령 및 제도상의 제약은 차치하고라도 녹용의 수입과 관련된 어떤 분야에서도 양록업계는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신토불이」를 외치며 우리 것을 소중히 하자는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국내 양록산업은 타의에 의해 국외자의 입장이 될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양록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련부처를 상대로 양록인과 업계 모두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부재가 국내 양록산업의 활성화에 역행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한약재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업계의 편견은 국산녹용의 판로개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지금도 한약 관련업계에서는 국산녹용의 사육환경과 가격 등을 운운하며 품질을 불신하고 구매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그러나 실상 이는 국산녹용의 품질에 의문을 갖고 있다기 보다는 국산녹용의 구매로 인한 수익의 감소에서 비롯된 편견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로 국산녹용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는 수입녹용에 비해 다소 비싸지만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경우 월등히 싸다는 점에서 이 같은 지적은 설득력이 높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 관련업계의 편견이 수익과 직결된 것이어서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들 한약 관련업계의 그릇된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이들로부터 수입녹용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한의원 또는 한약방 등을 대상으로 국산녹용의 우수성을 중점적으로 홍보 한방의료기관에서 국산녹용을 찾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사슴사육의 최적지이며 사료 또한 갈잎, 아카시아잎, 참나무잎 등 관엽수를 공급, 소나 면양의 사육을 위해 조성된 초지에서 사육된 외국의 사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특성과 장점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이와함께 양록업계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의 극복도 국산녹용의 판로개척과 나아가 양록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주지하다시피 국내 양록산업은 아직까지도 대다수 생산농가가 영세한 상태를 탈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개 농장단위의 판매형태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같은 판매형태는 상품성의 낙후와 함께 혐오감, 위생처리 과정상의 문제를 야기 소비확대에 장애요소를 제공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지금까지의 판매형태에서 벗어나 품질과 함께 깨끗한 이미지로 소비를 촉진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협회에서 개설한 국산녹용 중앙직판장은 향후 영업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수 있겠다.

또 이와는 별개의 문제지만 양록인들의 구심점을 조속히 확보, 협회의 위상을 강화시키

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수십년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지금의 양록인들과 아직껏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어떠한 국가나 단체를 보더라도 구성원이 하나가 될때 힘을 발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없이 보아왔다.

지금 양록인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나 하나 짊이야」가 아닌 「나로 부터 시작」이다.

업권을 지키기 위해,또 자신이 속해있는 단체의 위상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타의 단체에서 양록인들은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외에도 국산녹용의 소비확대와 국내 양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홍보강화와 국산녹용의 고부가가치 상품화 시도,품질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등을 들수 있다.

특히 소비자에 대한 홍보강화는 궁극적으로 국산녹용의 소비확대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수 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녹용을 포함한 수입한약재는 물밑듯이 들어올 것이며 이에따라 양록인과 양록업계의 어려움도 계속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자세와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물론 이같은 어려움의 타개는 양록인과 업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 당국의 양록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진과 함께 한약 관련업계 및 소비자의 부정확하고 그릇된 편견의 지양 등이 수반될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노력과 한약관련업계 및 소비자의 인식전환에 앞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양록인들의 자구를 위한 노력임은 물론이다.*

광/고/안/내

「한국양록」은 본회에서 무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사슴 전문지입니다. 전국의 양록농가 및 관련업계·단체·기관·학계에 배부되는 「한국양록」에 광고 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광고 한 페이지는 「한국양록」을 발행하는데 자양분이 되어 줄 것이며 광고효과 또한 지대할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① 연간 계약할 경우 특별단가가 적용됩니다.
- ② 본회 지정 분양장은 관리규정에 준합니다.
- ③ 3회 이상 게재시 제작비는 본회에서 부담합니다.
- ④ 표지는 농장 사슴사진 게재를 원칙으로 하며,본문에 농장탐방 기사를 실어 드립니다.
- ⑤ 광고에 들어가는 사슴은 꼭 본인의 것 이어야 합니다.
- ⑥ 본회에서 공인하지 않은 녹용생산량은 광고 문구에 필히 「자체조사」라는 글을 명기해야 합니다.
- ⑦ 수입사슴 분양 광고는 절대 사양합니다.

(사)한국양록협회

문의전화 : (02) 969-6600(대표)